

## 남조선에서 강행되는 현대판식민지노예교육의 반동성

오 광 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 목적으로 식민지노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을 말살하고 퇴폐적인 〈양키문화〉를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12권 226~227페이지)

남조선교육은 극악한 친미, 친일사대매국노들에 의하여 외세의 비위나 맞추고 외세에 의하여 강행되는 철두철미 식민지에속성으로 일관된 반동적인 현대판식민지노예교육이며 그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반동적인 교육정책의 결과이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한 그 첫 시기부터 실시하여온 모든 정책은 그 침략적, 략탈적본성으로 하여 철저히 식민지에속화정책으로 되며 그의 중요한 실현수단인 남조선《교육정책》도 역시 미제에게 적극 추종하는 식민지노예교육정책으로밖에 달리될수 없는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정책은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요구를 정책화한것으로서 교육의 방향과 실천적방도를 규정한것이다. 따라서 미제가 실제적지배자인 남조선에서 《교육정책》이라는것은 철저히 미제의 사측과 지배밑에 강행되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켜 그들을 저들에게 순종하는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전락시킬것을 목적으로 한 철저한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이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강행하는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반동적인 교육체계를 통하여 계급적차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남조선청소년학생들을 저들의 식민지지배정책에 철저히 복무하는 현대판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비민주주의적이며 예속적인 교육정책이라는데 있다.

미제는 남조선청소년학생들을 식민지노예로 만들 목적밑에 반동적인 식민지교육체계를 조작하였으며 교육행정전반을 제놈들이 틀어쥐고 좌우지하고있다.

미제는 우선 남조선피뢰들을 앞에 내세워 교육체계를 저들의 요구에 맞게 반동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인 식민지교육체제로 더욱 개악하였다.

원래 교육체계는 일정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된 교육기관의 유형들과 그들간의 호상관계의 총체로서 그것은 해당 사회의 교육목적에 의하여 규정된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지배계급의 자식들을 위한 교육체계와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2중교육체계를 만들어놓고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은 지배계급의 자식들을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앞잡이로 키우기 위해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계통적으로 4~6년제의 대학과 2년제이상의 박사원까지 진학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은 식민지략탈에 필요한 초급기능공과 하급심부름군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피지배계급의 자녀들을 위한 직업기술학교, 실업학교로 구성되는 교육체계를 세워놓고 낮은 수준의 직업교육밖에 받지 못하게 하고있으며 기껏해서 초급대학과 전문학교

까지 다닐수 있게 하고있다. 놈들은 식민지략탈에 요구되는 기형적이고 값싼 로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교육체계라는것도 낮은 일반교육수준에 기초하여 만들어놓고있다.

이렇게 남조선교육은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현대적기술을 습득시키는것이 아니라 미제의 식민지략탈과 군사기지화정책실현을 위하여 부려먹을 심부름꾼, 값싼 로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학교망배치, 교육시설, 교원배치 등에서도 도시와 농촌간의 현저한 차이를 두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의 자녀들을 보다 더 우매화하는 계급적차별교육체제를 만들어놓고있다. 하여 농민들의 자녀들은 일제시기의 《간이학교》나 다름없는 초등학교 분교나 겨우 마치게 함으로써 6년제의 초등교육조차 완전히 받지 못하게 하고있다.

교육시설과 교원의 배치에서도 심한 차이를 둠으로써 착취계급의 자식들은 보다 유능한 교원과 보다 완비된 교육시설을 갖춘 《1부류》학교에 진학하게 하는 반면에 가난한 집 자녀들은 교육조건이 대단히 불비한 《2부류》, 《3부류》학교조차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있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피뢰정권을 내세워 피뢰교육행정기구체제를 조작하여 그것을 저들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식민지예속의 도구로 만들어버렸다.

미제는 《군정》초기와 남조선피뢰정권조작후 미군장교들과 미국인관리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남조선교육전반을 직접 장악통제하게 하였으며 일제가 조작한 식민지교육제도를 일부 존속시키면서 친미, 친일본자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피뢰문교행정을 장악하게 하였다.

《문교부》와 《공보처》를 비롯한 력대 남조선교육행정기구들을 제놈들의 심복들로 꾸려놓은 미제는 미국식《교육리론과 교육체계》를 주입시키기 위해 수많은 친미분자들과 현직 교원들을 미국에 끌어다 교육을 주어 남조선현지교육기관들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노예교육체제를 더욱 정비강화해나갔다. 미제는 남조선의 과학교육부문을 지배하기 위하여 현지기구로서 피뢰교육부와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 《문정과》, 《미국제개발처》에 《교육국》을 두고 그것을 통하여 남조선교육전반을 통제하고있다.

남조선피뢰교육행정기관인 《문교부》는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미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을 집행하는것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정책적도구였다. 미제는 피뢰《문교부》를 제놈들의 충실한 앞잡이들로 꾸리고 이를 통해 남조선교육전반을 지배하였으나 이것이 마치 독립국가의 교육행정체계이며 제놈들의 남조선교육에 대한 지배를 단순한 《원조》인듯이 떠벌이면서 그 침략성과 파렴치성을 가리워보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교육의 실제적지배자는 다름아닌 미제이다. 남조선교육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교부》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들이 있고 그 무슨 《독자성》이라도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적으로는 미제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강행하는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교육내용을 철저히 반사회주의와 숭미사대주의로 일관시킴으로써 남조선청소년학생들의 민족주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저들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반동적교육정책이라는데 있다.

교육의 내용에 관한 문제는 교육의 성격과 질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교육내용이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교육의 혁명성과 과학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질과 수준이 규정된다.

미제는 남조선청소년학생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켜 그들을 식민지노복으로 만들 목적밑에 교육내용을 반사회주의적인것으로, 숭미사대주의적인것으로 일관시킴으로써 청소년학생들의 계급적각성을 말살하고 우매화하고있다.

미제는 우선 반사회주의적인것으로 교육내용을 일관시키고있다.

남조선에서 반사회주의교육은 사회주의사상을 외곡날조하여 청소년학생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몽매하게 만드는 한편 반공화국대결사상을 고취하는 놈들의 중요한 정치적수단으로 되고있다. 특히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피뢰들은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까지의 일반과목, 전문과목을 비롯한 교과서내용의 48%를 반사회주의내용으로 일관시키고 입학과 졸업시험문제의 50%이상을 반사회주의내용의 문제를 출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내용전반이 반사회주의내용으로 일관되게 하고있다.

그리고 저들이 도발한 조선침략전쟁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보려고 온갖 악선전을 퍼붓고있으며 《북으로부터의 위협》, 《북으로부터의 침략》을 떠벌이면서 반공화국대결사상을 더욱 고취하고있다.

특히 우리 공화국북반부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핵시험들을 결코들어 《북으로부터의 미싸일위협》, 《핵위협설》을 떠들면서 갖은 악담질을 다 해대고있다.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의 반사회주의교육책동은 남조선인민들속에 우리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그들이 적아를 옳게 가려보지 못하게 하며 저들의 식민지배책동과 사대매국행위를 미화분식하는 가장 극악하고 비렬한 행위이다.

미제는 또한 《도의교육》이라는 미명아래 교육내용을 숭미사대주의적이며 반동적인것으로 일관시키고있다.

《도의교육》이란 반동철학인 존 듀이의 반동적교육리론에 봉건유교사상을 결합시켜 숭미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 개인향락주의와 봉건료리도덕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피뢰들은 《도의교육》을 통하여 남조선청년학생들속에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을 주입시키고있다.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은 학생들에게 미국이 세계에서 《최대의 강국》이며 《자유세계》를 《령도》하고있는 《지도적국가》이며 《현시대의 힘의 상징》이라고 설교하여 숭미사대주의를 주입시키고있다. 이와 함께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은 모든 교과서들에서 모든것에 순종하는것은 사람의 《미덕》이며 따라서 《과격》한 생각을 버리고 《사회》의 질서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설교하고있다. 이것은 《사회질서》라는 미명아래 근로인민대중이 저들의 식민지정책에 무조건 복종할것을 설교하는것 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한편 놈들은 학생들속에 낡고 반동적인 봉건유교도덕교육과 《계급협조》사상을 설교함으로써 남조선에서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순종과 노예적굴종사상을 더욱 고취하고있는것이다.

이처럼 교육내용까지도 반사회주의, 숭미사대주의사상으로 일관된 남조선의 반동적교육정책으로 하여 오늘 남조선의 적지 않은 학생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 민족자강력이 마비되어 외세에 대한 환상과 우상화가 짝트고 렵기적인 생활방식이 만연된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자로 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강행하는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교육기관들을 파썬화, 군사화하여 학생들을 저들에게 순종하는 노예로, 북침전쟁의 값싼 대포밥으로 만드는 반민족적인 교육정책이라는데 있다.

미제는 우선 교육기관을 파쇼화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청년학생들과 교원들의 반정부, 반미기운을 압살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고있다.

미제는 교육기관내에서 《리적단체》의 《색출》을 떠들면서 학생들의 각종 리념활동을 탄압하고있으며 진보적이고 애국적이며 통일지향적인 교원, 학생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체포, 처형하고있다.

이것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한총련》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씨말리기》책동에 뒤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분렬와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한데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참교》(민족, 민주, 인륜도덕교육)실현과 통일교육실시에 앞장서온 남조선에서 가장 크고 진보적인 교원단체이다. 1989년 5월 28일에 결성된 전교조는 결성 이후 교육의 민주화와 교육환경개선, 통일교육의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력사인식과 련북통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전교조의 진보적활동에 겁을 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보수세력들은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 《내부의 적》이라고 몰아대면서 그에 대한 대대적인 폭압선봉을 일으키고있다. 미제와 피뢰패당은 비렬하게도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을 내세워 전교조에 대한 합법적인 로조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부당한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로조가 자기의 활동을 원만히 할수 없게 하였다.

미제는 또한 교육기관들을 군사화함으로써 각급 학교들을 피뢰군병력의 원천지, 군사훈련장으로 만들고 학생들을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길들이고있다.

미제는 《안보교육》을 교육기관의 군사화책동의 하나로 정하고 학교내에 《학도군사훈련단》이라는 준군사조직을 내움으로써 학생들을 군사체계에 얹매여놓고있다. 미제와 피뢰들이 학교내에 《학도군사훈련단》이라는 준군사조직을 내온 목적은 대학 3-4학년생들과 교육대학, 일부 고등 및 전문학교학생들을 《훈련단》에 배속시켜 군사교육과 훈련을 줌으로써 그들을 피뢰군초급장교와 예비역하사관으로 양성하자는데 있다.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피뢰보수패당은 초중고등학교 교원들과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높인다고 하면서 군부전문강사들까지 동원하고 군부대병영안의 시설들을 참관시키면서 《안보교육》을 계단식으로 강화하였으며 지어 나어린 학생들에게 동족대결주제의 글짓기와 그림그리기를 강요하면서 극도의 대결의식을 불어넣었다.

미제와 피뢰패당의 이와 같은 《안보교육》책동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의 청소년들은 현대판식민지노예로 전락되고 동족대결의 대포밥으로 내몰리워 북남관계는 더욱더 파국으로 치닫고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미제는 식민지노예교육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식민지파쇼통치에 순응하는 현대판노예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우리는 미제가 남조선에서 실시하는 식민지노예교육정책의 반동성을 잘 알고 반미, 반피뢰선전의 도수를 더욱 높여야 할것이다.